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서거석 교육감, 대리 고발 나서... 공무집행방해죄 등 덕진경찰서에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

서거석 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교원을 장기

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했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별도로 A씨는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

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대리 고발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

난해 12월 27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선생님과 함께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이 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선생님의 사건이 언론화될 경우 명예훼손 소송 등에 또 다시 휘말릴 수도 있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했지만, 전북교육청이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사안을 공개함으로써 겪어야 할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모의 면접 경진대회

전주대학교 지역기반ICT경영커플링사업단(단장 김효진)은 지난 17일 제1회 모의 면접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 커플링사업 참여교수와 ㈜BNP컬처 양세벽 대표, 신한투자증권 김진성 전주지점장이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했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지원하는 희망 직무에 맞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미리 제출, 이를 사전에 검토한 면접관들이 면접자에 대한 맞춤형 질문을 작성해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총 6개 조로 나눠 실제 기업 입사 면접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뤄졌다. 복장, 태도, 표현력, 면접 태도, 취업 의지, 책임감 등을 포함한 인성, 전공에 대한 지식수준, 희망 직무와 전공 적합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평가가 진행됐다.

다들 다 면접을 통해 30여 명의 학생이 실전 모의 면접에 참여, 모의 면접 이후 학생의 면접역량 향상을 위한 면접관들의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진 단장은 “이번 모의 면접 경진대회를 통한 참여교수의 면접지도 및 기업 채용 담당자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찾는다

우석대 박노준 총장, 21일 중국 산둥사범대 방문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교류대학인 산둥사범대학교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22일 공자아카데미 이사회에 참석해 장젠 산둥사범대학교 총장 등과 한·중 간 공자아카데미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한·중 지역협력 합작프로그램과 우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양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2004년 복수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산둥사범대학교에 설립한 ‘한중합작국제경제통상대학’을 방문해 재학생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우석대학교와 산둥사범대학교는 지난 2008년 중국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도내 최초로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해 도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 보급 확산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장수·무주 이어 임실까지 목재 분야 네트워크 구축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 임실 목재문화체험장과 '맞손'

전북대학교 목재가공지원센터(센터장 오승원)가 임실 목재문화체험장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장수군, 무주군 등과 협약을 체결,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목재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임실 지역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혀 지역민과 함께하는 목재 문화 체험 등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목재 관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 목재가공지원센터와 임실 목재문화체험장은 그동안 매년 지자체와 함께 개최했던 지역민 대상 목공체험 행사를 더욱 확



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목재 관련 인·물적 교류와 국가 공모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공동 추진, 목재 문화체험 프로그램 교류, 목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삼성 증기 감지 스마트 화학센서 개발

전북대 정광운 교수 연구팀 장준화 박사과정생 센싱 플랫폼 적용, 즉각 검출 화학센서로 활용



정광운 교수



장준화 박사과정생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나노융합공학과) 연구팀의 장준화 박사과정생이 새롭게 개발한 이차원 나노구조 필름을 이용해 공기 중 미세한 산성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화학센서를 개발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공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Small (IF=13.3)'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산(酸) 분자와 직접적인 반응을 통해 형광 변화가 일어나는 유기 단량체를 새롭게 합성했다. 합성된 단량체는 자기조립-광중합-에칭 공정을 통해 넓은 표면적을 가지면서 고차원의 구조를 가지는 필름 형태의 플랫폼으로 개발했다.

제작된 필름은 가교 결합해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간단한 열기 처리를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 재사용성이 입증됐다.

특히, 분자의 배향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개발한 필름 내부에 형성된 나노채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산성 증기에 대한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LED칩과 방출면 등 다양한 센싱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간편하고 즉각적인 검출이 가능한 스마트 화학센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1저자인 장준화 박사과정생은 “공기 중 오염물질인 산성 증기를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형광 소재는 센서 분야에서 활용도 및 수요가 매우 높게 전망되는 소재”라며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기 중 산성 증기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형광센서는 실시간으로 시각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규·저경력 영양교사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합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교육급식 자문단과 학교 현장의 선배 영양교사로 이뤄진 현장지원단으로 운영, 신청 학교로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식단 운영, 급식조리 관리, 인력관리, 저탄소 채식급식 운영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감수, 해설 시스템 관리 등) △급식시설·설비(식생활관 신설 및 개축하고 자문, 시설개선 및 기구 배치 등) △영양·식생활 교육(수업설계, 영양수업 공개 및 분석 등) △학교급식 행정업무 지원(NEIS 관리, 에듀과인 업무) 등이다.

신청 대상은 신규 및 저경력 영양(교)사 배치교와 전년도 위생안전점검 결과 C등급 이하 학교다. 올해는 급식 운영 분야 30개교, 영양수업 장학 10

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급식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 공간 재구조화 진행 학교, 급식기구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다.

이에 저경력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학교단위 자주적 관리능력을 키우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높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컨설턴트 발탁식 및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 종합컨설팅을 통해 신규 영양교사 배치학교의 급식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구축해 학교급식 컨설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미래엔, 산학협력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지난 17일 전국 교과서 발행부수 1위 ㈜미래엔과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과 미래엔 신광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엔은 전북교총 회원의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등의 개발 검토의뢰와 전북교총에서 진행하는 교원 대상 다양한 행사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광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엔이 전북 지역 소규모학교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전북교총 회원의 복지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협약이 스승에 대한 존중 풍토 조성과 더불어, 선생님들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 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미래엔의 지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상향평준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학은 18일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고문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기전대, 전문대 기획실처장협 고문단과 간담회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대학 특성화 방향 등 공유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18일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고문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 삼육보건대학교 박주희 총장 외 前·現 전문대학 총장 및 기획실처장협의회 고문단 12명이 참석했다.

김현덕 기획예산조정처장은 전주기전대학의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 특성화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혁신융합캠퍼스는 전문대학 최초로 선정된 사업으로, 오는 9월 개교 예정이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은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 우수등급으로 선정, 앞으로 5년간 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조덕현 부총장은 “전주기전대학은 전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전문대학 기획실처장협의회 고문단 분들의 좋은 조언을 요청드리며, 전문대학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문단은 “앞으로 10년은 대학의 존폐여부가 달린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IS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전주기전대학도 이에 발맞춰 대학의 정책과 운영 방향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후에는 전주기전대학 말산업복합센터 견학 및 승마체험, 9월 개교 예정인 혁신융합캠퍼스 견학도 했다. /장은성 기자

'8월말 사립 교원 명예퇴직'

5월 13~17일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월 13~17일까지 2024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오는 8월 31일 기준 공무원연급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은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장은성 기자